승오스님의

경전읽기

안반수의경 ⑥

나고드는 숨에 해탈의 길이…

호흡 청정해지면 일체 행동이 곧 道

〈안반수의경〉의 수행법인 안반념법(安般念法)은 먼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장애물을 없애기 위하여 숨을 세는 수식(數息)과, 호흡이 원만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맞추어 주는 상수(相隨)와, 우리의 마음이 호흡과 하나가 되어 조화 통일되어 한 곳으로 머물게 하는 지(止) 등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이 셋이 연(緣)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면서 그 숨과 더불어 마음과 몸의 움직임을 그에 따라서 관찰하고, 몸과 정신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 이러한 관(觀)을 통해서 일체의 신상을 알게 되면, 이것에 의해서 호흡이 의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순일한 자아로 돌아와서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된다. 이것이 환(還)이다.

여기에서 오온(五緼)이 모두 공(空)하게 되고, 호흡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지고 전혀 의식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의식되지 않고 출입하는 호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 자체가 안락이고 즐거움에 머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태가 이루어질 때 일거수 일투족이 있는 그대로 도(道)가 되는 것이다. 이때의 호흡은 모든 것을 정화하고, 어떠한 장애나 번뇌가 없는 깨달음에 머물게 되는데, 이것이 정(淨)이다. 이러한 여섯 단계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데, 이러한 과정을 경전에서는 땅(地, 數)과 쟁기(犁, 隨)와 멍에(車+巨, 止)와 씨앗(種, 觀)과 비(雨, 還)와 근행(勤行, 淨)에 비유하고 있다.

이처럼 〈안반수의경〉의 상권에서는 호흡 명상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원론(原論)을 이야기하였고, 하권은 각각을 설명하는 각론(各論)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상권은 주로 호흡의 원리와 호흡의 수련 단계에 대한 설명에 초점을 두고 있고, 하권은 보다 세분화시켜서 수련의 단계와 각각의 단계에 상응되는 깨달음의 경지를 이야기하고, 그 효과와 공덕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하권에서는 불도 수행의 서른일곱 가지의 단계인 삼십칠도품(三十七道品)의 설명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이 삼십칠도품의 수행이 완성되었을 때 호흡의 청정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고 설하고 있다. 이것은 높은 곳을 올라가려는 사람이 37개의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가서 드디어는 정상에 도달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부처님께서는 안반수의의 요지를 "비구들이여, 들어오고 나가는 숨에 마음을 두는 것을 수습하여 널리 익히면 큰 효과를 얻고 큰 공덕이 있느니라. 여러 비구여, 입출식을 수습하고 널리 익히면 칠각지를 원만히 한다. 칠각지를 수습하고 널리 익히면 명(明)·신통(神通)과 해탈(解脫)을 원만케 한다."

이것은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에 마음이 같이 머물면, 이것이 사념처에 원만한 것으로서 입출식념(入出息念)은 행하고 머물고 눕고 앉음에 항상 마음이 대상과 떠나지 않으면서 마음이 그것과 같이하여 들어오는 숨 속에서 신·수·심·법이 나와 하나가 되고, 모든 것에 걸리지 않으며 심신이 움직이지 않는 속에서 승묘한 법 그대로의 세계에 머물게 된다. 여기에서 지혜를 얻으며, 이 지혜를 얻어서 해탈, 곧 열반적정(涅槃寂精)에 이르러 깨달음의 대 광명을 발하게 되는 것으로 그 끝을 맺고 있다.

▩해인사 승가대 교수

다음 호부터는 반산 스님(봉선사 능업학림 연구원)이 이 난의 필자로 참여합니다. 그 동안 좋은 원고로 독자들을 경전의 세계로 이끌어 준 승오 스님께 감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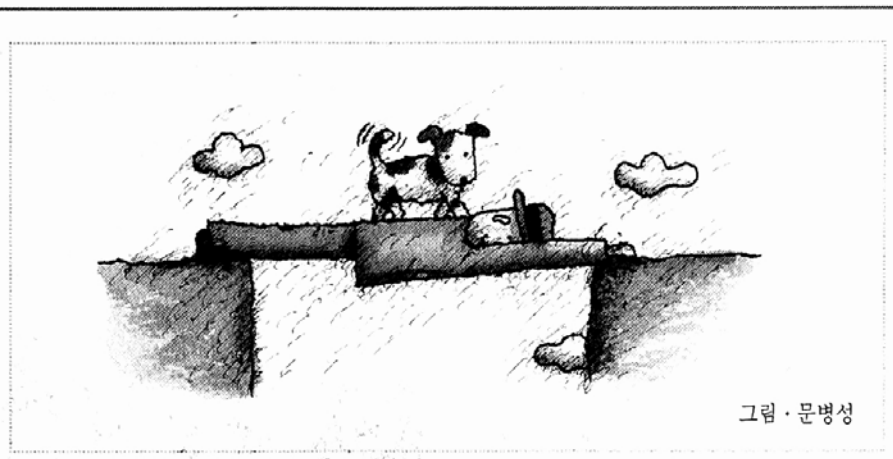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무심으로 도와야 참 보시

불교와 과학 〈21〉

이타주의

1859년 다윈의 종의 기원이 발표되면서 당시 서구 사회의 사상적 풍토에 큰 요동이 일어났다. 과학적 진화론이 기독교의 인간관과 정면으로 충돌된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나아가 종교와의 갈등말고도 당시 유럽의 사회상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법칙으로 다윈의 진화론을 수용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산업혁명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자본시장의 이론적 원천인 자유주의의 맹아가 자리잡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노동착취, 인간소외 등의 자본의 피폐성이 노골화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당시의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그 어느 것도 이론적 합리화를 완성시키지 못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그들 나름대로의 과학적인 배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떤 과학법칙을 찾고자 했다. 이때 마침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오게 된 것이다.

다윈의 진화론은 자연선택과 변이라는 두 축 위에서 성립된다. 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진화론에서 약육강식의 논리를 견강부회로 끌어댔다. 반면에 사회주의자들은 생명종들의 조화론을 끌어내어 자신의 이론적 무기로 삼았다. 당시 극단적으로 상반된 자유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동일한 진화론을 자신의 이론적 근거로 삼았다는 점은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었다. 진화론을 해석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유기체의 자연선택과 적응논리를 자유경쟁 체제의 논리적 근거로 보고 싶어했다. 반면에 사회주의자들은 생명종 내의 개체의 이타심이 궁극적으로 그 집단의 존속을 유지시키는 강한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했으며, 나아가 개체간의 조화 가능성의 논리적 근거로 보고자 했다.

19세기 말 중국은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기 위한 부국강병론의 일환으로 다윈의 진화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부국강병론 혹은 자본주의 시장의 자유경쟁 논리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진화론의 자연선택론이었다. 다시 말해서 강한 것은 자연선택에 의해 살아남고 약한 것은 자연도태되는, 약육강식이라는 매우 처절한 논리가 중국도 강해져야 한다는 정치논리로 연결되었다. 이런 경우 내가 살아 남기 위하여 네가 죽어야 하는 집단 이기주의만이 팽배해질 것이 너무 뻔한 일이다.

그러나 자연선택의 진화과정에서 반드시 강한 것만이 살아 남는다는 논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일반인의 가장 큰 오해이다. 다윈은 일개미의 경우와 아프리카 어떤 종족의 사례를 통하여 나를 희생시켜 자기가 속한 종족 혹은 개체군집 전체의 자손증식과 종의 존속을 유지시키는 개체의 이타적 행위를 매우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인간의 도덕심이나 이타심도 자연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며, 집단의 종족보존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자아낼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다.

최근 그런 이타주의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화생물학자 사이에서 있어 왔다. 예를 들어 먼 훗날 모종의 보상을 바라고 남에게 이타적 행위를 한다면, 그것을 과연 진정한 이타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이다. 아무리 먼 훗날이라도 보상을 바라고 하는 행위는 절대로 이타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이타주의는 선천적인 그 무엇이어야 한다. 단기간에서만 볼 때, 생명종의 개체들이 이기적일 경우, 분명히 더 자손증식에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볼 때 오히려 이타적인 것이 더 자손증식에 유리한 경우가 많다. 아주 간단히 생각해서 어떤 공장주가 자신의 이익만 챙겨 오염물질을 마구 방출하는 공장을 운영한다고 할 때 자신과 자신의 자식 정도야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류종 전체의 입장에서는 종의 존속과 자손증식에 불리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과 학 이타심 종족 보존 원동력

불 교 돕는다는 생각없어야 공덕

대승의 차원에서 이타주의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바라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정도는 알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행위, 그리고 무엇을 바라서가 아닌 행위는 그 자체로 서양적 잣대의 윤리적인 틀조차도 벗어나 있다. 윤리라는 틀도 역시 세간의 분별심에서 나온 규범이기 때문이다. 선진유가의 텍스트에서는 그 첫 장에서 인간의 욕심을 버리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에서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욕심을 가져야 한다고 썼다. 불교의 첫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썼는데, 그러나 다음 장에서는 인간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그런 욕심조차도 버려야 된다고 했다. 이렇게 규범화된 윤리조차도 벗어나는 일, 무심의 이타만이 진정으로 인류의 진화에 선택될 수 있다고 본다. 불교의 이타성은 생각으로 하는 계산된 이타가 아니라 몸으로 하는 자연스런 이타이기 때문에 인간종 진화에 훨씬 높은 적응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덕/상지대 교수(jdchoi@chiak.sangji.ac.kr)

사찰서 전통의학 배워 주민 무병장수 돕는다

지구촌 불교 / 티베트 의사스님

티베트 하면 불교와 달라이 라마를 떠올리겠지만 세계 의학계는 다른 각도에서 티베트를 지켜보고 있다. 티베트 고원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다른 곳과 비교해 유난히 길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티베트인의 장수 비결의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 조사한 바 있는데, 지난해 발간한 〈세계 건강 보고서(World Health Report)〉에서 그 이유를 티베트 불교의 전통 의술을 교육하는 사원인 문파찰창과 티베트인의 소박한 삶에서 찾고 있다.

◇약초를 다듬고 있는 티베트 스님들.

'의학불경' 읽고 약초 수집

자연 치유력 활용 병 고쳐

문파찰창이란 스님에게 의술을 가르치는 절을 일컫는다. 1951년까지만 해도 티베트의 라사에는 가장 큰 규모의 문파찰창이 있었다.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금 그 사원은 의사들의 수련기관인 의술학원으로 통합됐다.

그러나 〈세계 건강 보고서〉에 따르면 아직도 지방에는 문파찰창의 역할을 해내는 사원들이 있으며, 이곳에서 스님들이 의술을 배우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의술의 최대 수혜자인 티베트인들은 전래의 비방을 물려받은 나이든 의사 스님을 가장 존경하며 따른다. 한여름이면 사원 주변에 병을 고치기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로 임시 천막을 칠 정도라는 것이다.

문파찰창에서 스님들에게 가르칠 의술의 교재로 선택하고 있는 것은 〈의경팔지〉와 〈사부의전〉이다. 〈의경팔지〉는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을 도입한 불교경전의 하나로, 약보다는 자연적인 치유력에 입각한 양생법이 주 내용이다.

〈사부의전〉은 티베트 고유의 전통의학 경전으로, 8세기경 티베트의 유명한 의학자가 썼다고 전해진다. 〈사부의전〉은 탕카(우리나라의 탱화와 비슷)로도 전해지고 있다. 중국의 한의학과 이론적 차이가 있으며, 특히 음식을 통한 식이요법을 강조하는 것이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라사에서 남쪽으로 2~3시간쯤 차로 달리면 초목이 울창한 장수촌에 도착하는데, 이 곳에는 티베트 특유의 약초들이 많다고 한다. 또한 의사 스님들은 봄, 가을마다 이 곳을 찾아와 약초를 수집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생활수준은 낮지만 악착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말하고 있다. 티베트인의 삶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자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티베트인들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 주목한 티베트인의 삶의 태도는 삼독을 멀리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 자체가 아닐까. 그렇다면 티베트인의 장수 비결은 불도를 이루겠다는 마음에 있을 것이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四柱命理學의 限界를 克服시킨 ——

改訂增補版

六壬來情秘法

(易術活人天役者用)神示出刊

★래방인에게 던질 첫 말을, 초사(招辭)란에 송곳같이 적시(摘示)해 놓았습니다.
★해당 국수(局數)에, 물어 오는 내용을 23가지 용건별(用件別)로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이 책은, 입문서가 아닌 천역자용으로서 즉시적 효용에 중점을 두어 난해한 육임을 따로 연구할 필요없이, 펼쳐 보기만하면 순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놓았음은 물론, 四柱로는 판단이 안되는 각종 육임비법들을 요약 · 정리,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철학관이나 사찰이나 무속점에 사람이 들어서거나 전화했거나, 어디를 가서 만났을 때, 출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시간만 보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 버릴 수 있게끔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를테면,

●무슨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중할 것인지(이는 초사란에 적혀 있습니다.)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들여다만 보면 알 수 있도록 摘示해 놓아, 미리 그 情況을 지적하므로써 來人의 顔色과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形而上學人으로서의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존경 · 귀의 받을 수 있는 비법들로는,

- 약속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잉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날 아이인지,
- 혼인이 성립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치료될 수 있는 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즉시 딱부러지게 말해줄 수 있도록 간추려 놓았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60甲子 매일 매시간별로 來人의 사정을 採出해 놓아, 만나거나 전화한 시간만보면 그 사정이 환히 드러나게 되어있고, 居所를 떠나 부재중 일때는 1시간 후든, 하루 후든, 열흘 후든, 1년 후의 어느 때라도, 찾아온 사람의 來意 및 事情을 미리 날짜와 시간별로 예시해 놓을 수 있어, 가히 神通의 경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 책이 아니고, 五行 또는 法力과 神明의 경지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神靈 · 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弄斷되지 않도록 음양오행가 · 무속인 · 스님 등 活人專門天役者의 개인 주문만 받고 있습니다.

▶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辯)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책 값 : 삼십오만원(₩350,000)
■책 질 : 영구 보관용으로 제작(책크기는 가로21cm×세로30cm)
(흑색 표지 · 양장제본 · 금박 · 2000페이지 · 미색용지 · 옵셋인쇄)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려
■배 달 : 입금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전 화 : (02)993-8680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90-49호 일심빌딩 401호

도서출판 복 문 대표 김 나 려

·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책값이 他 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천역자용이므로, 이책을 활용하여 획득 될 명성과 학문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내용이 실망되실 때는 즉시 대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본책 휴대용은, 본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값50,000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법들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일 · 시(每日 · 時)별로 적시하여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혹, 의문되시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오. 저자인 鼓卜子 曉史선생님과 연결하여 친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출판 卜 問 올림

전 내용이 한글에 한문 토(吐)가 달려 있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책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보고 말하면 되는 책입니다.

매달 마지막 일요일 오전 10~17까지 총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면 이 책을 더 밝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밝게 보실 수 있는 요령이 녹화테이프로 제작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주문하십시요.

희망사 · 승진사 · 구재사 · 시험사 · 구직사 · 결혼사 · 임신사 · 가정사 · 이주사 · 소송사 · 질병사 · 매매사 · 여행사 · 도난사 · 심인사 · 상면사 · 채용사 · 투자사 · 승부사 · 가격사 · 농경사 · 묘지사 · 기후사